우주베키스탄 사역

동역자님 오늘도 평안하시지요?
동역자님의 기도로 우즈베키스탄 사역 잘 마치고 무사히 타지키스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역은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의 믿음과 선교의 비전을 위한 집회를 세번 가졌습니다. 사역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역자들이 성령충만 받고 선교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타쉬켄트 성도들은 갖은 핍박속에서도 믿음을지키며 교회 건축을 위해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집회한곳은 우즈백 원주민들이 모이는 교회의 지도자 대상 집회였는대 담임목사가 열정적으로 전도를하고 성도들을 양육하기위해 힘을 다하는것을보고 많은 은혜를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소망이 이 교회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즈벡국경을 넘어서 타지키스탄으로 와서 제자 목사를 만나 교제를 하고 두산베오는길에 시골마을에 들어가 제자인 아하드 전도사를 만나 사역을 둘러봤습니다. 아하드 전도사는 여러마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사는 마을에는 사역을위한 교회건축을 하고 있는대 교회건축에 필요한것들이 많았습니다. 인근각처의 여러마을 이만여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전하며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음에 그 동안 복음으로 가르친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사역자 훈련생들에게 맛이있는 생선튀김을 해주고 양육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은 두명씩 짝을지어 기도하러나갔습니다.
이제 저녁에는 아이들 이십여명을 모아서 교제와 양육의 시간을 가집니다. 우즈베키스탄에도 타지키스탄에도 참으로 할일이 많습니다.

밭이 희어저 추수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의 인내와 몸이 얼마나 견딜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요. 타지키스탄에서 데이빗 최 보냅니다.

<기도부탁을드립니다>
오래전에 주님이 가라고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서진을 기도하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프카니스탄과 중앙아시아와 이란사역을 하고 있고 다음은 이락과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의 가는 길을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달전에 주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가는길을 시리아쪽이 아닌 다른길로 갈 것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깝고 주님도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더이상 지체하실 시간이 없으신가봅니다.

이번 가는 사역의길은 터키 · 아랍에미리트 · 레바논 · 요르단 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성령님께순종하며 갑니다.

함께 가는 네 명의 제자들의 안전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가는 길마다 밟는 땅들이 회복되어 거룩한 땅들이 되어 오실 주님을 맞이 할 수 있는 땅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요.

마라나타 !

타직스탄 최윤섭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스웨덴 김명자 선교사- 췌장암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몸속의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터키 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터키 최지섭 이혜영 선교사- 이혜영 선교사님은 척추끝 부분 통증이 심하여 MRI 검사 결과 줄어든 암으로 인해 뼈부분이 연약하여 통증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아르헨티나 강지애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림프로 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5. 강명철 선교사 - 영적 전쟁에서 승리 할수 있도록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도록.
6. 이지향선교사 - 척추 협착증과 발 족저근막염이 치유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7. 김에스더/김송호 목사님: 페가 빨리 회복되고 자가 호흡이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합니다.
8. 페루 박윤수 선교사님이 눈 황반변성 으로 수술받으시러 한국에 나가셨습니다. 주님이 깨끗이 치유하시도록.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2년 2월 27일 | 선교사 현황 | 53개국 321명 | 자체파송74%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1)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동안도 변함없는 사랑과 많은 기도로 동역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해이지만 또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2022년도에도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도집회>
A. 7월25일 추이니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700명이넘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옷2000벌, 빵 음료수와 학용품 셋트를 선물로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몰려왔는지 준비해간 선물들이 모자랐습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교회를 왔지만 선물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B. 8월1일 마충과 마윌리 교회 어린이 전도집회
이 교회는 초창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전도 나간사이 사택을 이슬람의 방화로 모두 전소된곳입니다. 사모님이 아이들과 울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옷과 이불등 가재도구와 식량을 도와주고 사택을 시멘트블록으로 건축해 주었던 교회입니다.
머슬렘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 집 불태우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집을 지으니 화가 더난다 고 했던 곳입니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과 교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옷 1000벌과 빵, 과자, 음료수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우물 사역>
A.7월 3일 2000명이 사는 웰레조 마을 우물 성공
길이 80m의 호스를 수중 펌프와 함께 관속으로 넣어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명이 함께 도와주어야 호스가 꼬이지 않고 잘 넣을 수 있는데 돈을 주면 잡아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 아프리카 현실입니다. 자기들이 먹는 물이지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게 파주는데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마음이 몹시 상합니다. 백인들은 돈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동네 아이들 역시 어른들을 따라서 돈을 주면 호수를 잡아 준다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엔지오 사역를 잘 설명하였더니 호수를 잡아 주었습니다. 유치원 꼬맹이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감사의 선물로 축구공3개를 선물 했더니 아이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는데 하나님을 원망할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고 안타 까웠을까? 가나안을 가야하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기도합니다. 이 우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저들이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물을 후원해 주신 김기수 집사께 감사를 드립니다.

B. 8월13일 주우 야 신가 마을 우물 성공
주우 야 신가 마을 사람들은 마을 꼭대기에 사는데 물이 없어서 날마다 밑에 마을에 가서 물을 길어다 생활을 했는데 집집마다 노란 물통가지고 와서 줄을 맞춰 세워 놓고 물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맑은 물이 쏟아져 나오자 물을 받으며 연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통씩 한통씩 가지고 가는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광 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 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에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2)

C. 8월 21일 무아카제 마을 실패
40메타를 파던 중 자꾸 무너져서 일단 철 수 하였습니다. 실패 할 때면 너무 실망하고 낙심이 됩니다. 동네 주민들은 언제 파 줄 거냐고 물어 옵니다. 다음에 우물 팔 때는 꼭 성공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D. 9월 15일 추이니 마을 성공 2000명이 넘게 사는 추이니 마을 우물 성공했습니다.
지난번 전도 집회 했던 추이니 교회와 가까운 마을 이어서 아이들이 저희를 알아보고 먼저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받았던 선물들을 보여 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물이 나오자 동네 분들이 노랑 물통을 들고 물을 받아가면서 연신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물을 통한 복음의 통로가 추이니 교회로 연결되어 전도 집회 나왔던 어린이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사랑의 나눔
키베니 초등학교와 키베니 마을 선물 나눔
10월22일 우물을 파 주었던 키베니 초등학교와 키베니 마을에 선물을 나누러 갔습니다.옷 2천벌, 가방 양말 작은 이불과 새 속옷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키베니 초등학교 4학년 140명 친구들에게 선물을 나누면서 이 선물은 예수님 믿는 나의 친구들이 선물 한 것인데 너희들도 훌륭하게 자라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키베니 마을 사람들은 아주 이ㅅ람 강성인데 약400명이 넘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 선물을 받았습니다. 새 잠옷을 나눠 주면서 이 옷은 잠옷이니까 꼭 밤에만 입어야 된다고 했더니 모두들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옷이 너무 좋아 낮에 입고 다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0월26일 우리 학교 아이들 98명에게 에코오 백과 잠옷 ,속옷, 양말 선물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4. 4, 6학년국가시험 각각 3등
10월 15일부터 11월2일 까지 올해 4학년 65명 6학년 33명 총 98명의 아이들이 국가시험이 시작되기 전 2달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면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가 1월1일 발표되었는데 4학년은 3등, 6학년도 3등 했습니다. 4학년은 5만2천명 넘게 시험 봐서 10등 안에 3명 들어갔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 3명이 각각 1등, 3등, 7등을 했습니다. 6학년은 4만6천명 넘게 시험 봐서 10등 안에 1명이 8등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1등 하지 못해 죄송하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5. 졸업식과 방학식
12월 3일 유치원 55명과 6학년 33명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큰아들 결혼식관계로 11월 17일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김 혁수 선교사님 부부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졸업식과 방학식을 진행 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1년 동안 열심히들 공부한 것을 발표회를 통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22년 새 학기는 1월 3일 개학합니다. 새해엔 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고해 주신 김 혁수 선교사님 부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 12월18일 큰 아들 윤현 결혼식
갑작스런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아이 결혼식 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축하객이 없는 결혼식이 될까 염려스러웠지만 큰 아들 결혼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 우리 쪽 하객이 많이 오시지 않아서 마음이 슬펐는데 단기 선교오신 충신교회 집사님들과 서울 조이풀 교회 목사님께서 많은 청년들과 먼 곳까지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7. 선생님들 기숙사와 게스트 하우스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귀한 동역자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좌절하지 마시고 2022년엔 더욱더 힘내셔서 주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어머니의 건강과 큰아들 가정이 새 출발을 잘 할 수 있도록
2..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
3. 중학교 건축과 강당 후원을 위하여
4. 중학교 책걸상, 과학 기자재, 영어책을 모을 수 있도록
5. 컨테이너를 띄울 수 있는 경비 후원을 위하여
6. 학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 할 수 있도록
7. 어린이 전도 집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8. 우물 팔 때마다 성공할 수 있도록

- 탄자니아에서 정 부진, 조 그레이스 선교사

선교지로 돌아오게 됨을 감사하면서

팬데믹으로 인해 선교지 문이 닫히고 2년 가까이 선교관에 머물면서 그 동안 미루어 왔던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전립선 수치가 높아서 조직검사를 권유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왔던 전립선 조직검사를 하게 되었고 결과는 전립선암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몰려오는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혼란스러웠지만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고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복잡한 의료보험 문제를 해결하면서 20년11월24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동역자들의 기도로 수술도 잘 마치게 되었고 회복과 함께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년은 더 치료해야 하는 일정이 남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에 살면서>
러시아의 성탄절은 1월7일입니다. 오랜만에 성도들과 함께 감격의 성탄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떤 성도는 안보이고 또 보지 못했던 얼굴도 있었습니다. 어려움가운데서도 함께 고난을 통과한 새신자들이 있어 역시 선교지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조금은 불편한 환경입니다. 물가는 오르지만 환경이 많이 바뀐 듯 하여 반갑기도 하고 국가의 정책은 있지만 그것도 아닌 것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도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그냥 감기이고 늘 겨울이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저희도 감기로 알고 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온라인 예배 준비>
이곳 우랄지역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까테린버그 은혜교회에서는 대면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겸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교회 출석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뚜린스크 은혜교회 는 미완성된 성전에서 추위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빠코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끼로바 은혜교회와 채머젼 교회에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청년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마다 대면과 비대면 예배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카테린 교회를 통해 세워진 마약 재활 센터2곳과 재소자들을 위한 쎈터, 그리고 4번째 세워질 쎈터를 위해, 섬길 사역자와 재정과 훈련에 필요한 모든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월28-4월3일#29 TD 와 7월에 있을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중보기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첼랴빈스크에서 러시아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중보자들이 모여 기도할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기도제목>
1.저희들 건강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수술 후 hormone therapy 중입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2.성도들의 예배 회복을 위하여.
3.청년 사역자를 위해서.
4.교회의 모든 P-A시스템이 문제가 생겨서 바꿔야 합니다.
5,일 년에 2회 TD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이루어지며 우랄지역교회의 부흥이 있도록.

-러시아 김봉년 선교사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 : 12~13)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나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큰 딸의 입시준비로 인한 한국 방문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복귀 했을 때는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 보자기 싸놓듯 꽁꽁 싸매고 있던 것이 하나 둘 풀려 지금은 예전의 캄보디아 일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침투는 참 긴 여정이 되었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외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막막함 속에서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나니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심은 초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심도 막막함을 더하여 지금은 고민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그래서 일단 예배 모임을 시작하고, 성경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없어QT책을 통해 매일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게 하려 합니다. 5분이면 읽을 분량인데도 꾸준함을 키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쩜으란이란 친구는 고등학교를 다시 들어갈 것을 종용했지만 원하지 않아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교회 사역자가 없어 나이는 어리지만 이 친구를 파트 타임으로 월급을 주고 교회 간사로 두려 하였으나 본인이 거부하고 대신 교회 찬양인도 봉사를 자처하여 주마다 찬양 인도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찬양인도가 많이 어색하고 미숙합니다. 소피라는 친구는 이제 고등학생이 된 친구 입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동안 그 친구가 자신의 진로의 어려움을 호소해 와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쓰나오 은혜교회가 소피가 학교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독교 학교로 입학을 시켰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저희에게도 소피에게도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있던 일, 보았던 일을 기뻐하며 주일 마다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모습은 저희에게도 큰 기쁨이 됩니다.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고 일찍 공장에 나가는 친구들은 많은 경우 스무 살 전 후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마을 안에 예전에 나오다 안 나오는 친구 두 명이 20살 19살이 되었는데 근래에 결혼을 했습니다. 요즘 스무 살이 된 리읍이 남자 친구가 생겨 교회를 등한시 하여 저희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놓고 기도 하며 계획 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아직 날짜를 잡지는 못했지만 세례 받을 조건이 되는 친구에게 세례를 베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주의 자녀를 시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점점 날씨가 더워 지고 있습니다. 사역하기 좋은 최적의 시기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기도제목>

1. 쩜으란이 물질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무엇보다 헌신된 주의 일꾼으로 잘 성장될 수 있도록.
2. 리읍이 참 신앙인으로 믿음이 굳건해 지며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3. 소피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성실히 전진 할 수 있도록.
4. 올해에 있을 여러 일정과(달란트 잔치, 초청과 찬양집회,다른 교회와 연합된 부흥회) 세례식을 위하여.
5. 교회 지체들이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갖도록
6. 교회 지체들이 매일 교회에 들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할 수 있게 오고 가며 들르기 쉬운 위치에 예배처소를 마련 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사람과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7. 선교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며 영적 분별력이 있도록.
8. 계속적인 언어의 발전과 지체의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잘 소통 할 수 있도록.
9. 좋은 사역자와 동역 할 수 있도록.
10. 사역과 생활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11. 주님의 은혜로 성신여대 상담심리 학과에 진학하게 된 큰 딸 드보라가 한국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을 발하며 살아가도록, 또 생활비와 학비를 책임져 주시도록.
12. 캄보디아에 함께 있는 두아이(다니엘, 샤론)의 진로와 안전을 위해.

<2022년도 스나오 은혜 교회 계획안>

1. 방과후 활동 - 성경공부(사랑공간), 성경 읽기 및 쓰기, 한글 공부, 종이 접기, 영어, 분기별 단기 계획, 여러 번 시행하다 그만 둔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 계획을 설정해야 성취감이 생길 것 같음.
2. 학습 및 세례 문답, 세례식, 14세이상이 된 청소년(쩜으란, 소피, 리읍)에게 세례교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참 신앙인이 되도록 권면한다.
3. 다른 마을 전도 및 예배처 개척 (일정과 구체적인 타 지역 땅 밟기 필요)2022년도 중점사역, 분기별 전도 - 예산 책정 및 전도 대상에 따른 계획(어른, 청소년, 어린이), 다른 마을로 전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예배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및 시간 계획이 필요한 시점(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해왔던 사역이 멈춰짐)
4. 교회 행사: 달란트 - 분기(전후반기)별 1번 , 3월 말일 1분기 달란트 잔치 준비중, 9-10월에 후반기 초청잔치 및 찬양발표회 - 다양한 새로운 찬양을 시도하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0월(방학)성경학교 - 단 기간의 교육을 통해 전도 및 신앙 생활을 도움이 되록 준비한다. 말씀 사경회- 다른 교회와 연합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교회와 교류를 통해 교회의 연합과 말씀을 통한 신앙을 고취시켜 준다.

- 태국 김광석 선교사

Happy new year!

얼마 전에 양이 또 쓰러졌습니다. 의사가 방문해 해부했습니다. '살펴보다'가 배를 가르고 살을 펴서 구석구석 자세히 펼쳐 보는 것임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대장 속의 똥까지 다 헤쳐 보았습니다. 간을 살펴보던 중 기생충이 우글거리며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기다랗게 꼬물대는 벌레가 징그럽기 보다 감사가 먼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들 덕분에 '대지신의 저주'가 아닌 원래 있던 목장에서부터 키워왔던 벌레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에 쥬얼리(엄마양)가 다이아(첫째)와 몬드(둘째) 수컷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양의 이름은 삼남매가 기도하고 지어줍니다. ^^) 몽골인들은 첫 새끼에 수컷 쌍둥이를 낳으면 그 해 대박이 난다고 다들 축하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대지신이 우리 양들에게 내린 '저주'에서 '거부가 될 징조'로 순식간에 전화위복 시켜 주셨습니다.

1월 26일은 장호 선생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음력으로 '불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사 전 무교절처럼 집 안의 모든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 날도 이웃집 대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몽골인들은 불의 신에게 절하며 제사 지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슬림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몽골인이라면 의무입니다. 장호 선생은 생일 소원으로 "진짜인 '성령의 불'이 가짜 '불의 신'을 소멸시키시고, 우리가 그 명예를 되찾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틀 전 이스라엘(엄마양)이 예루(첫째)와 살렘(둘째) 암컷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먼 길을 산책하러 나갔다가 길 가에서 해산했습니다. 이 때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길 가는 멀었습니다. 놀랍게도 다른 목장에서 잠시 빌린 유일한 수컷양이 우리로 돌아오지 않고 혼자 길 가에서 모녀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수컷 양 덕분에 무사했습니다. (먼 목장에서는 들짐승의 습격으로 백마리가 넘는 양들이 다 죽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밤이었으면 영하 20도를 밑도는 날씨에 동사했을지도 모르는데, 해가 있는 낮에 새끼를 낳아 참 감사했습니다.

바로 옆 목장에는 오랜 경력의 전문가가 최첨단 시설에서 양을 키웁니다. 그런데도 아기양 40마리 중 7마리가 동사했습니다. 생사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찾아뵙고, 내일부터 몽골족 가정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성령님께서 꼭 만나야 될 사람들, 꼭 해야할 말들을 알려주시길 기도합니다. 몽골인들은 아직 우리가 교사 인 것을 모릅니다. 그저 목양체험하러 온 기독교인인 줄로만 압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목양체험을 잘 패스한 뒤에, 주님께서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잘 목양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곳 광야에서의 관계는 곧 품앗이고 체력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고, 몸으로 섬길 수 있도록 더 체력을 길러야 겠습니다. 지난 한 해 저희를 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깊은 사랑이 동일하게 중보자님께도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부디 더욱 강건하게, 전화위복되는 돌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 중국 장호, 김미자, 장에녹, 장에덴, 장조아 선교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렘33장3절 말씀)

인도 현지 상황: 현재 인도는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었고 저희 교인들과 저도 오미크론 코로나 에 확진 되었고 지금도 주위에 많 사람들이 계속 확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지금 위드 코로나 와 함께 또한 부분적 으로 코로나 확진 속도 가 빠른 지역은 부분적인 통제와 함께 일상 생활 회복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침례식: 콜카타에서 200KM 떨어진 바닷가 인 오리사 주 부근에 있는 디가라 는 바닷가에서 새롭게 개척한 가정교회 성도 16명과 함께 1박2일 기도회를 가지고 또한 새해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침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년예배>
곳곳에서 새해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아무것도 염려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장6~7절 말씀) 특별히 감사한 것은 20년 동안 귀신들린 상태에서 자기몸을 자해하고 남편을 폭력하고 가정적으로 너무 힘든 한 자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역자들과 같이 그 가정을 방문 해서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 가라고 손을 얹고 기도 했을때 갑자기 그 자매가 넘어지면서 악한 귀신이 물러가고 복음을 듣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가정을 오픈해서 2022년 새로운 가정 교회 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또한 주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 스러운 새해 간증입니다.

<교사 세미나>
교사 들이 긴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렀던 마음들과 영적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뒤로 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수 있도록 새로운 공과 학습법을 배우면서 학생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사들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시간에 받은 은혜를 잘 간직 하면서 주님의 은혜가운데 승리 할수 있는 교사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코로나 팬데믹 으로 영적으로 억눌렀던 모든 것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교인들 각 가정마다 회복되기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새로운 가정교회와 침례식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 할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3. 저희 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인도 콜카타 정희중.전문희 선교사

침례식

사역자 부모님 가정 심방

교사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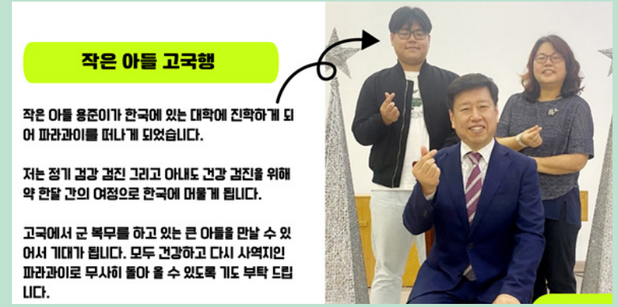
신년 예배

학생회

새로운 가정교회 가족들

언젠가는 오겠지 했던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전 세계에 급속히 퍼지면서 파라과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오미크론에 확진되었고 저희 가족도 언제 감염이 되었는지 어디에서 감염이 되었는지 모르게 확진을 받았습니다. 며칠은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 하였고 특히 저와 아내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약한 오미크론 변종이 감염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 할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자료들은 우리 선교부에 Facebook page [GMI Mission Team]에 방문해주시면 잘볼수있을겁니다. 자주 방문 해주세요!)
- 파라과이 김돈수 선교사